2020-1-22

'용신봉사상' 故 홀트여사
'올해의 여성상' 김강자서장
'김활란 지도자상' 박영숙씨



버사 홀트 여사



김강자 서장



박영숙 총재

한국여성단체협의회(회장 은방희·殷芳姬)는 21일 제 36회 용신봉사상에 고(故) 버사 홀트 여사를, 16회 올해의 여성상에 김강자(金康子·55) 종암경찰서장을, 제2회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에 박영숙(朴英淑·68) 사랑의 친구들 총재를 선정했다.

고 버사 홀트여사는 1955년 남편 고(故) 해리 홀트씨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, 전쟁고아보호와 국내외 입양 등에 평생을 바쳤다. 김 서장은 미성년자 보호, 윤락퇴치 등에 기여한 공로로, 박 총재는 KBS시청료 거부운동을 주도하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시 여성단체연합회장, 현재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. 시상식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10월 6일 열리는 전국여성대회에서 있을예정이다. /김동선기자

dongsunkim@hk.co.kr